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경쟁교육고통 해방을 촉구하는 “경쟁은 No, 배움은 Oh, Yeah~” 캠페인 출범식 예고보도(2022.5.20.)

5/22(일), 아동·청소년의 경쟁교육 고통 해방을 촉구하는 “경쟁은 No, 배움은 Oh, Yeah~”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쟁교육 Zero 캠페인 출범식

경쟁은 No,
배움은 Oh, Yeah~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광장
2022. 5. 22. (일) 15:30~17:00

 YouTube 생중계

15:30-16:00	16:00-16:40	16:40-16:55	16:55-17:00
제로제로 이벤트 · 경쟁교육 ZERO 서명 참여 · 마스크&손미켓 꾸미기	개회 및 공연 · 조인정 마임아스트 · 캠페인 선언 · 현장 시민 발언	청소년 판소리 공연 · 이서현 송혜연 단기인 학생 · 시민 퍼포먼스	캠페인 참여 안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아동·청소년들의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긴급 캠페인 ‘경쟁은 No 배움은 oh yeah~’ 캠페인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그 출범식을 2022년 5월 22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사거리(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개최합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5년간 대한민국국민의 삶과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지만, 단언컨대 그 중 교육의 문제는 가장 중핵적인 과제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과 인구절벽의 문제는 출혈적 경쟁의 장이 되어버린 교육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적 경쟁 속에 신음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고3의 하루를 그린 다큐는 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8000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지금 5학년인데 하루 7~9시간 공부하고 너무 힘들어요 대학 대학 공부공부 우리나라가 왜 이지경까지 됐을까요”, “고2되니까 왜 자살하는지 알 것 같다”, “아직 12살밖에 안되었는데 너무 힘든데 고3연니오빠들은 얼마나 힘들까”, “잠을 자려고 누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 댓글을 읽어보는 누구든 이 고통, 공포와 불안이 학생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공간 어디엔가에 댓글 하나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고통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 속에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개인의 노력이 모자라서, 노력하면 될 일, 열심히 공부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속에 학생들은 유튜브 댓글 창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댓글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이 문제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30.4%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은 학업문제가 38.6%, 미래에 대한 불안이 21.9%입니다. 데이터와 수치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폭력적 경쟁교육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쟁적 교육 고통 문제는 학생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명백한 사실임에도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가 발표되었지만 교육영역의 과제는 단 5개, 그 중 학생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직접적 과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유형의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수직적 서열화가 공고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니다.

경쟁교육 고통 해결은 정부가 하지 않는 일, 정치권이 관심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경쟁교육 고통의 당사자인 학생들, 그리고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아픔은 실존합니다. 집단적으로 느끼는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더 이상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밖에는 이 문제를 들고 나가 외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이 모여 경쟁교육의 고통이 개인의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병리적인 문제임을 목소리 모아 외쳐야 합니다. 교육은 낙오자를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배움임을 선언합니다. 물론 지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 변화의 날은 올 것입니다.

5월22일 일요일 4시 광화문 사거리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미래의 변화를 오늘에 마주하는 그날 뵙겠습니다.

■ 행사명 : “경쟁은 No, 배움은 Oh, Yeah~” 캠페인 출범식

□ 일 시 : 5월 22일(일) 오후 4시

□ 장 소 :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청소년 당사자 공연
- 교육고통 해방 및 행복교육 선언
- 학생, 교사, 정신의학전문의 발언
- 추후 캠페인 전개 계획

☞ 현장 참석 신청 | <https://forms.gle/WG8E9mDwQii4CPhV7>

2022. 5. 2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02-797-4044, 내선 503)